



도시환경과 경관조명의 중국연수 참관기

경기엔지니어링(주) 김용강 이사/기술사

IMF를 거치면서 국가적·사회적으로 급변화되는 파고 속에서 회사와 동거동락하며 함께 해온 모든 임직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중국 연수에 나섰다. 최근 수년간 8%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상해푸둥, 심천, 광주 등의 특별 개발 구역과 홍콩의 실상을 직접 보고 전기설계 및 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엔지니어링(주) (대표 이원섭)에서 1·2차 27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수가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느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중국의 특별지구와 홍콩의 경관조명이 도시미관과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경관조명의 발전방향과 느낀 점에 대해 적고자 한다.

이미 우리회사는 2002. 12. 29 - 2003. 1. 1(3박4일)동안 1차로 16명이 중국을 다녀온 바 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해있는 상해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청사가 있었던 곳이라 그런지 어딘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



〈상해푸둥지구 '동방명주'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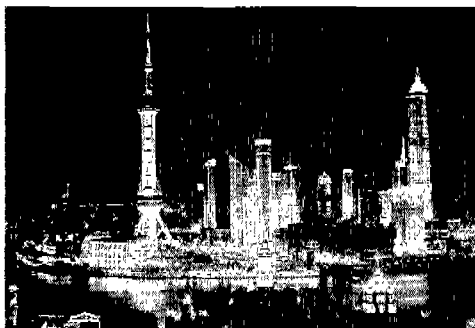
상해는 중국 동해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인구 1,760만

명의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항구이다. 이에 걸맞게 중국에서 가장 큰 산업기반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10년전 만해도 보잘 것 없던 촌락을 신도시지구로 개발한 푸둥지구는 우리의 서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금융 및 경제중심으로 세계각국 건축가들의 경연장인 듯 건물의 생김새와 규모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동양에서 가장 높다는 88층의 하얏트호텔은 건물 중앙을 우물처럼 비어있게 만들어서 내부에 금빛의 조명과 어울려 상부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은 금물결 속에 내가 서 있는 느낌까지 들게 하는 멋진 내부조명이었다.

아간의 상해의 경관조명은 푸둥지구의 동방명주탑, 하얏트호텔, 박물관, 도서관, 남포대교, 전시센터 등에 100년전 서양 열강의 취향대로 지은 와이탄 건축물들의 고풍스러움과 세밀함까지 더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였다. 건물내부 유리창에 형광등을 설치하여 문틀을 이용한 경관조명과 형형색색을 이용한 고가대교와 온갖 빌딩이 불을 밝히고 가로등, 네온사인 등을 이용한 반짝이는 경관조명은 더욱 감동을 자아내게 했다.

황포강에서 바라본 푸둥·와이탄지구의 경관조명은 와이탄의 고풍스러움과 푸둥의 초현대화를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환상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중국개혁의 선두주자 심천의 경관조명〉

2003. 2. 28 - 2003. 3. 3(3박4일)까지의 일정으로 2차 해외여수를 위해 우리일행 11명은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비행기를 타고 3시간 후에 중국 광주의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전용버스를 타고 중국 경제의 선두주자인 심천으로 향했다.

심천은 23개의 성 중 광둥성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곳으로 총면적 2,020Km에 2,3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GNP가 가장 높다. 연평균 기온은 22℃정도.

중국에서 가장 일찍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개혁과 개방이 실시되고 있는 심천은 영국이 지배하던 홍콩과 가까워 해외 유·출입이 많아 중국의 유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발전은 이루어졌지만 가이드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수준은 우리나라의 60년대라고 한다.

심천의 교통규칙은 먼저 밀고 들어 온 차가 왕이고, 사람들도 차 사이로 고개를 하며 건너는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심천은 특히 중국의 교통정책을 상징하는 자전거보다 경제적 부로 인해 오토바이가 더 많은 곳이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 기아차는 중국제품보다 2~3배가 비싸서 많이 타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시내에는 세계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국내 타이어회사의 홍보간판도 눈에 들어왔다.

중국은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제적 부로 인해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

고 있다. 골프장이 90개나 되며 180홀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장도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주강에서 심천의 야간 경관조명을 보기 위해 배에 탔다. 주강은 태평양 끝자락 바닷물과 밀물이 만나 주해, 광주, 심천을 경유해 육지로 들어와 있는 강으로 강폭 중 가장 넓은 곳은 200Km에 달하며 전체 16개 대교가 건설되어 있다.



〈태평양가를 따라 건축한 용궁의 빌딩숲을 배경으로〉

우리는 해주대교의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해주대교는 일반적 형

태의 현수교로 야간 경관조명은 현을 중심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대교를 따라 길게 설치한 형광등은 국내 한강에 설치한 것과 비슷했으나 대교하단이나 주위에 설치한 램프는 보호갓의 방향과 램프선정의 문제로 눈부심이 몹시 심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주강에서 본 심천 시내 경관조명의 특징은 도로변을 따라 가로수 나무마다 녹색의 조명을 비춰 더욱 푸르게 강변 조명효과를 높였으며, 빌딩상단은 피라밋 모양의 구조물로 만들고 조명을 실시하여 피라밋을 연상케 했다. 강 주변을 따라 파랑의 띠를 한 네온싸인이 5Km 넘게 양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높은 건물 곳곳에서 레이저 조명으로 눈길을 끌게 하였다.



〈청마대교〉

얼마 전에 우리나라 63빌딩의 레이저 조명예술을 보고 효과적이라고 느꼈지만 이 정도의 예술성 같

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주변 건물벽과 지붕의 램프 과다설치로 인하여 혼란스러움과 전력 과소비라고 우려되는 곳도 상당히 많아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광동에 화력발전소를 세워 홍콩에 보낼 뿐 아니라 충분한 전력으로 관광자원화하여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였으나 그렇게 감탄이 들거나 멋있다는 느낌보다는 어지러운 경관조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전기기술자들이 공사, 보수 등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고 이 곳에 와서 사업을 해야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다.



〈세계제일 홍콩의 경관조명〉

심천에서 홍콩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천의 출국 심사 후 5분 정도 걸어 심천과 홍콩을 잇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입국을 위해 엄청나게 길고 긴 줄을 서서 인내심 테스트를 통과 한 후에 입국 심사를 받은 후 홍콩으로 들어가는 국철을 탈 수 있었다. 홍콩의 전철은 국철(KCR)과 지하철(MTR)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는 LO WU역에서 출발하여 40여분 후에 홍콩에 도착했다. 국내의 지하철 사고가 있었던 터라

홍콩의 전철내부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의자와 벽, 천정, 손잡이까지 SUS를 사용하여 불을 내도 탈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하철과 철도청 공사를 했던 본인으로서 이것을 정작 문화 수준의 차이로만 넘기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아픔으로 느꼈다.

홍콩은 1842년 南京조약이 체결된 이후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까지 155년간을 영국 식민지로 보냈다. 인구 650만명, 1인 국민소득 \$23,000정도(95년기준)의 세계무역, 금융중심지로 우뚝 서세된 홍콩은 전선의 지중화등으로 도시가 깨끗하고 모든 건축물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으며 고층이 많다. 바닷가를 매립하여 바닷가를 따라 건물들이 지어 있다는 것과 아파트도 기본이 40층이 넘어 다양한 초고층 건축물이 즐비하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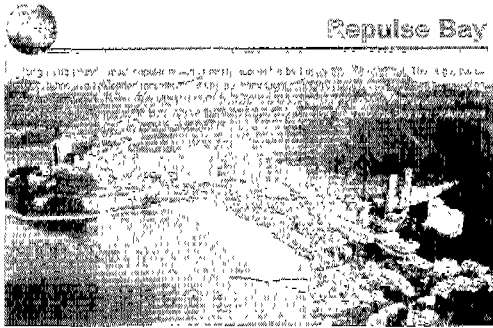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홍콩을 천가지 표정을 가진 곳이라고들 말한다. 그것은 다채로운 흥미거리와 볼거리, 풍부한 먹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홍콩남쪽에 위치한 동남아 최대의 해양종합 위락공원의 산 정상에 설치한 등산 케이블카. 매우 인상적인 이 케이블카는 태평양 하단의 바다언덕을 따라 설치되어 케이블카 안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고있으면 금방이라도 태평양에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들기도 하며 바다의 돛단배를 보면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평안과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었다.

지하 3개층을 연결하여 물고기들이 수압을 느끼게 한 해양수족관과 1,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야외 돌고래쇼는 다양성을 더했고, 산 정상까지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100M, 45℃ 정도의 경사로 4개가 계속해서 설치되어 있어 해양공원 전체를 편하게 관광할 수 있었다.

30℃의 기온으로 전용버스에는 에어컨이 계속 가동되고, 우리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리펠스베이의 바닷가 야자수 그늘에서 쉬면서 여유를 되찾



았다. 우리나라는 겨울이었지만 우리는 여기 리펄스 베이 바닷가에서 첨벙거리며 시원한 여름도 만끽할 수 있었다.



〈홍콩의 Repulse Bay〉

우리는 세계제일의 경관조명이자 홍콩의 중요 관광상품인 야경을 보기 위해 발길을 분주히 옮겼다. 먼저 554M의 빅토리아파크 정상에서 바라본 홍콩 반도와 구룡반도의 화려한 도심 풍경에 빠져들고 톱니바퀴 열차로 공원 정상까지 연결된 급경사의 철도를 타고 40℃ 가 넘는 경사를 내려와 지붕 없는 버스를 타고 홍콩시내의 야경을 감상하며 건축물과 경관조명의 다양함에 흠뻑 빠졌다.

곤장 배를 타고 경관조명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 구룡반도를 향해가면서 바닷가의 야경에 다시 한번 감동했으며 구룡반도에 내려 홍콩섬을 바라보는 빌딩숲의 경관조명과 시원한 태평양의 은은한 바람은 순간적으로 목은 피로와 세상사를 한 목에 싹 씻어버렸다. 과연 세계제일의 경관조명이라 아니 할 수 없었다.

무역전시장 건물은 바닷가에 앉은 갈매기 모양의 조명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28,000여개의 전구를 사용했다는 점보식당은 불바다를 연상케 했으며 78층의 센츨랄프라자와 주변의 여러 빌딩은 경쟁이라도 하듯 화려함과 고요함, 순수함과 순결한 느낌까지 갖게 하는 여러 방식의 경관조명으로 감탄을 연발하게 했다.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홍콩의 야경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력이 전부 중국의 광동에서 들어온다는 것이다. 100% 수입한 전력을 이용하여 관광상품화해 200% 성공한 곳이 바로 홍콩이다.

상해는 초고속자기부상열차와 인력거가 동시에 달릴 정도로 현대와 과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대의 신기술과 전통의 우수성이 집약적으로 느껴졌고, 여기에 어울리게 실시한 경관조명 또한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에 비해 홍콩은 상해 푸둥지구보다 화려하고 깨끗하며 은은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경관조명으로 100% 관광자원화시켜 200%의 효과를 보는 세계제일의 100만불 야경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를 참고한다면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다.

이제 우리는 19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국제화에 부응하여 경관조명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지만 국가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미미하고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더 큰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강에서 느끼는 여유와 시원함, 순수한 백의 민족, 동방예의지국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건 및 국내 경관조명의 축적된 기술과 국가적 지원, 개인,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분적인 경관조명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넓은 안목을 보고 전선을 지중화 하는 등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한강주변 빌딩과 한강대교 등의 조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좀더 독창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관광 상품화한다면 홍콩 못지 않을 것이다. 100만불짜리가 아니라 수억 만불의 야간 경관조명이 기대되고 도시미관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맺는다. <끝>